

아들에게 빛을 선물했다



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막차 세대에게는 큰 라이프 스킴이 남아 있다. 장성한 자녀들의 결혼을 치르는 거다. 사실 자녀 결혼과 관련해선 마땅한 해답을 찾기 어려워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 만만치 않은 일이다. 제일 큰 비용은 신혼집 비용이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2022 결혼 비용 보고서'에서 신혼부부의 총 결혼 비용이 2억8739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난 신혼집 비용이 결혼 비용 급증을 이끌어낸 것이다. 그걸 보는 심정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대부분은 신혼집 비용이고 나머지는 예식 등 결혼식 비용으로 얹혀진다. 하지만 놀랍다. '결혼은 꿈도 꾸지말라'는 말처럼 들린다. 가난한 부모는 물론이고, 사랑에 빠진 청년들에게도 무언의 협박처럼 다가올 듯하다.

며칠전 친구 아들이 결혼했다. 그 결혼식을 다녀오면서 아이들 결혼 준비는 반평생에 걸친 숙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결혼식은 여느 중산층 처럼 평범했다. 그러나 특별한 부분이 있다. 그는 결혼하는 아이를 위해 얼마전 집을 사줬다. 교사부부로 정년을 앞둔 그들이 돈이 많아 집을 사줬을리는 없고, 아무튼 이 어려운 판국이 그가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가 아들에게 집을 사준 내력은 이렇다. 아들은 코로나19 직후 수물문제 해결을 위해 풀란드로 장기출장을 다녀올 정도로 유능한 2차전지 공정 엔지니어다. 그런 아들에게 결혼할 시기가 닥쳐 친구는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바로 아들 명의의 '만능통장'이라는 청약통장이다. 십수년이 넘어 진즉에 1순위가 된 통장이다. 그리고 아들 회사 근처인 화성 동탄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당첨,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네게 결혼비용으로 아파트 분양권 하나와 5000만원 밖에 줄 것이 없구나. 결혼식, 아파트 중도금 등은 너희들이 감당해 나가는 걸로 하자."

아들은 내년 중반 신혼집에 들어가기로 하고 월세집에서 신집살림을 하기로 한 것이다. 마침 교사인 어머니감도 납득하고 혼수도 새 아파트 입주 이후로 미뤘다. 그가 아들에게 증여한도인 5000만원 외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만능통장을 준 것이

다. 그리고 보면 결혼이란 게 아이때부터 준비해온 셈이다. 또 있기는 하다. 엄밀히 말해 신혼의 출발부터 젊은 부부가 오랫동안 갚아가야 할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 즉 빛이다.

식장에서 만난 친구들은 한결같이 '애들 결혼준비를 20여년을 해온 것 아니냐'며 이구동성이었다. 만능통장이 없는 친구는 한탄하기도 하고 어느 친구는 선견지명이라고 감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내게는 자녀 결혼을 위해 만능통장을 만들고 매달 십수년동안 한두푼씩 꼬박꼬박 불입해온 이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노고와 비애가 먹먹하게 비쳐졌다.

친구의 심정은 어떤가. 차마 친구에게는 그 심정을 묻지는 못했다. 다만 내 친구들은 그렇게라도 결혼을 치르는 친구에게 감복하는 걸로 바쳐는 나쁜 것 같지 않다. 빛 한덩어리보다는 집 한채에 모두 시선이 사로잡혀서 그 빛마저 선물할 수 없는 처지가 더욱 아플거라는 생각은 왜 이리 허전한 지. 만능통장이라는게 자녀들 결혼을 20여년 이상 준비하라는 족쇄란 걸, 그리고 그 족쇄를 물려주는 인계식이 결혼이라는 걸 알게 된다.

/건설부동산부 선임기자 peace@metroseoul.co.kr

유커가 온다... '중심'을 잡자



기지수첩
허정연 (산업부)

한국~중국 하늘길 빛장이 풀렸다. 지난 2017년 3월 사드(THADD) 사태로 인해 멈춰있던 중국의 자국민 단체관광 제한조치가 6년 5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의 귀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중국발 관광 수요 '후풍 예보'에 우리 정부도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태세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4일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중국 방한객 200만명을 유치, GDP 성장

률을 0.16%p 높이겠다고 발표해 관련 업계들을 설레게 만들었다.

먼저 중국인 관광객의 원활한 입·출국을 위해 1인당 1만8000원 상당의 전자비자 발급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 면제한다. 또한 인천·대구·김해 공항의 슬롯을 늘리는 등 한·중 노선 증편을 위한 대책에 돌입한다. 정부는 지방공항 항공편을 일찍 예매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모션도 진행해 지방공항 활성화도 노린다.

이어 중국 현지 마케팅도 강화한다.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있을 중국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다. 그야말로 중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요 예측'과 '관광의 질'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각을 세우고 있어

한국이 일본 대체 여행지로 인기를 끌 수도 있다. 하지만 유커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국가가 많아 그 반사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칫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 항공업계는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관광'을 유커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 중국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 이슈가 있었던 2017년에도 중국은 '한한령'이 공식 조치가 아닌 업계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유커로 단기성 성과를 올리는 데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한류 콘텐츠 강화와 다양한 나라를 대상으로 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심(중국인 관광객의 마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리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zelkova@

오늘의 운세 9월 6일 (음 7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어 내는 날. 48년생 내게는 이익으로 돌아온다. 60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자산. 72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심란. 84년생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니 실력이 우선.



37년생 한발 물러서는 것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49년생 생각지 못한 일로 심신이 고달픈 하루. 61년생 현실이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면 만족해야. 73년생 물이 들어오니 열심히 노를 저어라. 85년생 하늘은 맑고 마음도 편안.



38년생 마음은 바빠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50년생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 62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내가 먼저 다가가라. 74년생 말만 잔뜩 시끄럽다. 86년생 무리하지 말고 형편과 능력에 맞출 것.



39년생 사업이든 직장이든 성실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51년생 자녀보다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낫다. 63년생 가문에 단비가 내리니 좋은 일. 75년생 함께 하려거든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87년생 소원성취는 시기상조이니 인내를.



40년생 김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지만 기다리지 마라. 52년생 상처는 나야도 흉터는 남는다. 64년생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 확실한 문서로 남겨라. 76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88년생 마음을 좋게 먹어야 주변에 적이 없다.



41년생 가까이 있다 해서 소홀히 대하면 마음을 다친다. 53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65년생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77년생 사람이 많으니 겸손한 태도를 유지. 89년생 삶의 질은 내 선택으로 결정.



42년생 십 년생 목은 제왕이 단번에 해수된다. 54년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66년생 흐르는 물처럼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해결. 78년생 희망은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 90년생 구름이 하늘을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43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5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마라. 67년생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79년생 바라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91년생 말은 하기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다.



44년생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각오로. 56년생 아랫사람 의견을 존중해줘야 대접받는다. 68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주의. 80년생 지인과 돈거래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결과 된다. 92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45년생 다시 관리를 잘 해야 남은 날에 후회하지 않는다. 57년생 간교한 속삭임이 많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9년생 후한 끝은 있어도 박한 끝은 없다. 81년생 발전을 위해 준비하는 하루. 93년생 격한 언쟁은 서로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46년생 지칠 수 있으나 의외의 큰 이득을 본다. 58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70년생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낭패. 82년생 주변 상황을 잘 판단하라. 94년생 사돈덕에 마음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아름답다.



47년생 자고 나도 피곤이 풀리지 않으니 좀 쉬어야 할 때. 59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게 좋을 것이다. 71년생 진인사대천명이라 했다. 83년생 적당한 경쟁은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다. 95년생 사랑에 푹 걸다가 닭 쫓던 개 신세 될 수도.



김상회의四季 백중재

필자는 신도님들의 부주한 일상을 배려하여 한국 대부분의 사찰에서 행하는 백중재를 백중날인 음력 7월 15일보다 사흘 전 일요일에 행했다. 이와는 별도로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월광사에서는 백중 입재로부터 49일간을 일주일 간격으로 일곱 번 지내는 백중재는 꼭 동참을 원하는 신도님들과 소소히 올려왔다. 지난 음력 7월 초하루는 백중 5재이기도 하여 같은 날 동시에 재를 올리게 되었다. 해마다 맞이하는 백중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백중은 매년 처음 지내는 재齋인양 마음가짐도 경건하고 간절하다.

왜 해마다 같은 조상들을 대상으로 백중이라는 천도재를 지내냐고, 매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수십 번을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이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불가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도과를 이루어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해야 하는 것이기에 일 년에 한 번이라도 불보살님들의 위신력에 의지하여 세세생생 인연되어진 선망부모는 물론 친족연속까지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무릇 모든 중생들과 존재들을 위하여 법다이 성불발원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깝게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대한 정성이요, 더 나아가서는 연속·친족까지 포함하여 여름 내 정성껏 수확한 과일과 곡물을 올리면서 정성을 더하는 것인 데다가, 4월 보름날 입재하여 올곧게 수행한 출가수행자들이 해제하기도 하는 날이니 이보다 더 의미 깊은 좋은 날을 찾기도 쉽지 않다.

유교에서는 보통 4대 불가에서는 보통 7대조까지는 거슬러 올라가 재를 행하는 것이니 일 년에 한 번 음력 7월 보름날 합동 천도재를 지내는 백중재는 그리 정도가 과하지 않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7		1	5		6
	1		2		5
		5	6	8	9
2	1			3	5
	6				4
5	9			1	2
		4	8	7	2
	2		4		1
1		3	2		4

3	1	7	8	9	5
7	2	6		9	1
5	3		8		4
		2	6		
9	6		7	2	8
1	9	5	3	8	7
2	4	8	7	3	1

정답

7	2	9	8	6	1
8	1	9	6	7	5
5	6	2	1	8	4
2	8	1	9	5	7
6	7	1	9	2	8
9	9	5	7	8	1
1	2	6	8	1	9
2	9	8	5	7	4
9	5	7	9	6	1

1	6	5	2	9	8
7	9	9	2	6	1
2	8	8	5	7	9
8	5	2	9	1	7
6	1	9	9	2	8
9	2	7	1	8	6
5	7	1	6	9	9
2	8	2	7	1	5
9	9	6	8	2	1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6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69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